

〈신청서 요약문〉

중심어	인공지능	철학	횡단성
	포스트휴머니즘	일반지능학	협업성
	디지털인문학	철학정보학	실천성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	<p>□ 인공지능철학 전문인력양성 교육연구단의 비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에 대한 철학적 반성>과 <철학-인공지능 공진화>를 핵심가치로 정립 ○ 인공지능에 대한 횡단적 접근을 통해 철학의 지평을 확장하고 심화함 ○ 기술·윤리 분야에서 철학과 인공지능이 협업·공진화할 방안을 제시 ○ 갈등해결과 인문복지실현에 인공지능이 복무하게 함 <p>□ 인공지능철학 전문인력양성 교육연구단의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의 철학적 쟁점에 대한 비판적 분석 능력으로 미래 발전 방향을 예측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 <인공지능리터러시>, <일반지능학> 과목 개설 ○ 인공지능과의 협업으로 윤리적 방향을 제시하고, 철학의 실천적 지평을 확장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 <인공지능윤리>, <철학정보학> 과목 개설 ○ 인공지능에 의한 철학의 지평 확장과 현대사회의 문제 해결로 <K-철학>의 내실을 풍부하게 함 		
교육역량 영역	<p>□ 횡단성, 협업성, 실천성을 갖춘 30명 이상의 인공지능철학 전문인력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철학, 포스트휴머니즘, 디지털인문학을 선도하는 세계 우수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벤치마킹하여 교과과정의 혁신적 개편 ○ 대학원 교과목을 8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교과목을 재구성하여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교과과정: 공통기초, 공통심화, 공통선택, 연구&연구윤리 - 심화교과과정: 심화선택, 일반심화선택, 트랙별 선택필수, 특별프로그램 ○ 사업단 산하 교육연구팀을 <비판적 인공지능 연구팀>, <실천적 인공지능 연구팀>, <철학정보학 연구팀>으로 구성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인공지능사관학교 등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인턴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 대학원생 국제대회 발표와 논문게재를 위한 <국제학술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 		
연구역량 영역	<p>□ 횡단성, 협업성, 국제성 제고를 통한 연구의 질적 우수성 향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횡단성, 협업성, 국제성 지표설정 및 연구지원체계 확립 ○ 국제성의 증진을 위해 A&HCI 논문, 국제학술대회 발표 등을 지표로 설정 ○ 교내외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평가환류체계 구축 ○ 참여교수의 중장기 연구계획을 지원하는 지원시스템 구축 ○ 국내·외 대학과 공동 연구를 통한 논문과 저서 출간 장려 및 지원 		
기대 효과	<p>□ 인공지능철학 전문인력양성 교육연구단의 기대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 친화적 철학 연구자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모형 제시 ○ 인공지능의 철학·사회적 쟁점을 선취하여, 새로운 문제의식으로 담론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 ○ 철학과 인공지능의 공진화 방안을 정립하여 철학의 지평을 확대 ○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철학 연구 분야의 방법론적 혁신을 도모 ○ 국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지역거점대학 철학과 대학원 모델 제시 		

I. 교육연구단의 구성, 비전 및 목표

2.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2.1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1)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

■ 교육연구단의 비전

○ <인공지능에 대한 철학적 반성>과 <철학-인공지능 공진화>를 핵심 가치로 정립

● 핵심 가치1 : 인공지능의 철학적 반성

- 인공지능은 철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인공지능 1세대의 논리 추론 방식은 인간 이성과 컴퓨터가 동형이라는 이성주의적 전제를 지님. 한편, 인공지능 2세대의 인공신경망 이론은 경험 자료의 축적으로 세계 본질을 파악한다는 경험주의적 전제를 지님. 최근에는 인공신경망 이론과 논리 추론 방식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인공지능은 동·서 인류 정신사에서 유래 깊은 개념임. 고대 그리스인에게는 인공인간 창조라는 아이디어가 있었고, 중국 고대소설 『봉신연의』에는 다양한 인공인간이 등장함. 인류 정신사에서 추구된 인공지능 개념을 정리하여, 그에 관한 현대적 관념을 돌아보아야 함.
- 지능 일반에 관한 학제적·융합적 학문인 ‘일반지능학’ 또는 ‘비판지능학’을 정립하여, 인간을 포함한 생물 지능의 차원에서 인공지능을 자리매김해야 함.

● 핵심 가치2 : 철학-인공지능 공진화

-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인공지능은 이미 ‘약한’ 도덕적 행위 주체로 널리 여겨지며, 관련 기술이 더 발달하면 ‘강한’ 도덕적 행위 주체도 될 수 있음. 이는 새로운 윤리 주체의 등장을 의미하고 포스트휴머니즘의 핵심 주체가 됨.
- 최근 각광 받은 디지털인문학은 ①데이터과학적 접근으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확보하고, ②비정형적 인문학 텍스트를 인공지능 친화적 데이터로 가공하는 작업을 지칭. 철학 연구 분야도 기존의 해석학적 방법과 더불어 인공지능의 조력을 받아 참신한 주제를 발굴하며, 역으로 철학 원전을 정형 데이터로 전환하여 인공지능 발달에 기여해야 함.
- 인공지능은 인종, 성(性) 등의 영역에서 각종 편견을 확대 재생산하고,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부작용을 낳음.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지속해서 생길 것이므로, 기존 윤리학과 포스트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편향과 개인정보침해에 대응하는 인공지능 윤리 전문 과정이 설치되어야 함.

○ 인공지능에 대한 횡단적 접근을 통해 철학의 지평을 확장하고 심화함

- 인공지능의 철학적 원리와 철학사적 배경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인공지능의 편견을 교정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실천적 관여가 병행되어야 함. 인공지능에는 이론과 실천을 가로지르는 횡단적 접근이 필요함.
- 인공지능을 철학의 주요 주제로 삼음으로써 철학의 지평을 확장하고,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철학의 전통 문제를 새롭게 사유함으로써 철학적 지평을 심화함.

○ 기술·윤리 분야에서 철학과 인공지능이 협업·공진화할 방안을 제시

- 최근 인공이론의 발전 방향은 인공신경망 이론과 논리 추론 방식을 결합하는 것임. 그러나 논리 추론 방식을 채택하면, 논리 언어의 불확정성 문제가 다시 제기되어*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에 근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철학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진보를 이뤄야 함.

* 더글라스 호프슈타터 저/ 박여성·안병서 역, 『괴델, 에셔, 바흐』, 까치, 2017.

-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인공지능 윤리 현장이 제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님. 이제

윤리 현장들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여 보편타당한 원칙을 추출해야 함. 이를 통해 인공지능을 훈련하여 인류에게 바람직한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도록 해야 함.

○ 갈등 해결과 인문복지실현에 인공지능이 복무하게 함

- 현대사회는 다양한 종류의 정치·사회적 갈등과 혐오·분열을 경험하고 있음. 갈등과 분열을 은폐하지 않고 이를 평화와 인문복지의 지평으로 이끌어가는 학문적 노력이 세계 학계에 정착되고 있음. 인공지능 윤리 제정을 통해 인공 지능의 편견을 시정하는 소극적 대처를 넘어, 갈등 해결과 혐오 중지를 위해 인공지능이 복무하게 하는 장기 과제가 추구되어야 함.
-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발생하는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윤리적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함. 인공지능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광물이 주로 저개발 국가에서 채취되면서 해당 지역에 환경 오염이 발생하고 노동력 착취가 일어나고 있음. 또한, 기계학습 데이터가 제3세계 영어권 국가에서 제작되면서 지역 노동자에게 저임금의 비인간적 노동 환경이 강요되고 있음. 전 지구적 윤리의 차원에서 인공지능 개발을 고민하는 과정이 마련되어야 함.

■ **교육연구단의 목표**

○ 인공지능의 철학적 쟁점에 대한 비판적 분석 능력으로 미래 발전 방향을 예측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 <인공지능리터러시> 교과목의 개발·설치

-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식 생산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 전반에 대한 거시적이고 개념적인 이해는 현시대의 필수적인 교양이 됨.
- 미래를 선도할 학생들은 인공지능의 성격과 그 성립 기반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해야 함.
-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사유방식과 행동양식, 그리고 사회 전반에 미칠 구조적인 영향력에 대한 비판적인 사유 능력을 갖추도록 함.
- <인공지능 리터러시> 과목은 수강생이 데이터 기반 인문학 기술을 실습하여 인공지능의 작동원리를 익히고, 인공지능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일반지능학> 교과목의 개발·설치

- 인간 지능은 새로운 대상·상황에 부딪혀 의미를 이해하고 합리적 적응 방법을 알아내는 지적 활동. 심리학의 주류 이론에 따르면, 지능의 최상위 층에는 일반 지능이, 중간층에는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이, 최하위 층에는 특수 지능이 각각 있음.
-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로, 기존 지능 이론은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음. 또한, 인공지능은 인간 지능이 아닌 만큼, 인간 이외 존재, 특히 인간 이외 생물체의 지능에 대한 포괄적 성찰이 요구됨.
- 프래그머티즘과 생의 철학 체계에 입각해 지능 일반에 대한 종합적 반성을 행하고, 이 기반 위에서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함.
- 동·서 철학사 내의 지능 개념을 추출하여 현대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반성하고, 역으로 철학사의 관점에서 현대의 지능 이론을 성찰하고 그 지평 확대를 도모하게 함.

○ 인공지능과 협업으로 윤리적 방향을 제시하고, 철학의 실천적 지평을 확장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 <포스트휴머니즘> 교과목을 개발·설치

- 브루노 라투르, 팀 잉골드는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분열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
- 도나 해러웨이는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의 존재론·정치적 경계를 넘어서 양자가 공존해야 한다고 주장.
- 포스트휴머니즘을 비롯해 트랜스휴머니즘, 포스트현상학 등 최근의 논의를 개괄하는 교과목 설치가 요망됨.

● <인공지능윤리> 교과목을 개발·설치

- 선진국에서는 약 15년 전부터 기계 윤리 분야가 개척되어 로봇 윤리, 인공지능 윤리가 하위 분야로 자리 잡았으며, 심지어 동양철학 분야에서는 유가적 기계 윤리에 관한 논문이 출판되는 상황임.
- 인공 지능 기술의 부작용이 출현함에 따라 유럽연합을 필두로 인공지능 윤리 헌장이 제정되고, 우리나라와 일본도 이를 뒤따르고 있음. 다양한 윤리 헌장을 교차 비교하여 일반 원칙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반 헌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줄 아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함.
- 생활 속에 이미 다양한 형태로 들어와 있는 인공지능과 그것이 파생하는 문제를 미시적으로 살펴보고 윤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더 나아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제작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 갈등, 환경 파괴 등을 거시적 시야에서 고찰하고 대안을 마련할 줄 아는 전문인력을 양성함.

● <철학정보학> 교과목을 개발·설치

- 철학정보학은 철학 원전에 대한 데이터과학적 접근으로 새로운 철학적 문제를 발견하고 통찰을 얻으며, 또한 비정형적 철학 텍스트를 인공지능 친화적 데이터로 전환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데이터과학과 디지털인문학에 대한 기초 이해를 바탕으로, 철학텍스트를 <멀리서 보는> 기존 연구성과를 충분히 숙지하고, 철학 원전 내의 각종 정보를 정량화, 규격화, 수치화할 줄 아는 역량을 개발함.

○ 인공지능에 의한 철학의 지평 확장과 현대사회의 문제 해결로 <K-철학>의 내실을 풍부하게 함

- 코로나팬데믹은 자유와 권리 위주 서양근대문명의 한계를 드러내어, K-컨텐츠에 풍부한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응답’이라는 가치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기 시작함. 광주의 5·18 시민혁명은 자유와 권리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응답’이 전면화한 세계사적 사건이자 K-철학의 정초임.
- 서구근대문명에 대한 전면적 반성과 대안이 결여된 채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한다면, ‘자국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타국을 식민지화’하거나, ‘상층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하층 시민을 부자유하게 하는’ 한계에 다시 부딪힐 수 있음.
- 인공지능 개념의 철학사적 반성, 그 원리와 미래 전망에 대한 철학적 이해, 인공지능 내·외부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을 기반으로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인공지능 문화를 선도하는 것은 K-철학의 내실을 마련하는 유력한 방법임.

2) 교육연구단의 현재 및 세계저명대학 벤치마킹 분석결과와 연계한 교육연구단의 미래 목표

■ 교육연구단의 현재

- 지역거점국립대학 철학과에서 다양한 전공 분야의 교수진을 상당수 확보하고 있다.
 - 2024년 4월 4일 현재 10명
- 교수진의 전공영역이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다.
- 교수 연구의 질적 수월성을 꾸준히 증진해 왔다.
 - 최근 5년간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 수 6편
- 전국 지역대학 철학과 대학원에서 비교적 많은 학문후속세대를 배출했다.(최근 10년간 석사 35명, 박사 21명)
- 세 번의 BK21 사업(2~4단계)을 통해 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을 강화해 왔다.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48편, 기타국제학술지 3편 게재; 공동저술 1권, 공동번역 1권, 단독 번역 2권 출판; 국제학술대회 8회, 국제학술교류대회 21회, 국내학술대회 12회 참여
- 대학원 교과목이 120과목 360학점으로 다양하고 풍부하게 구성되어 있다.
- <청소년철학교실>, <광주시민자유대학>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시민인문학을 주도하고 있다.

■ 세계저명대학 벤치마킹 분석 결과

- 인공지능철학 분야 벤치마킹

대상 그룹 선정 기준	① 지역 기반, ② 국·공립대학, ③ 디지털인문학 분야의 세계적 선도 수준, ④ 국가별 권역
선정요건	① 관련 교육과정 유무, ② 관련 특별프로그램 유무, ③ 철학과의 연계성 구현, ④ 융합성
국가별 권역	① 미주권역, ② 유럽권역, ③ 아시아권역

대상 그룹 선정	대상군	텍사스대학교 오스틴캠퍼스 윤리적 인공지능 과정	캠브리지대학교 인공지능, 데이터 및 알고리즘 윤리 과정	홋카이도대 인간지×뇌×AI연구교육센터
	지역기반	텍사스	퀵른	삿포로
국·공립대학교	공립	국립	국립대 법인	
인공지능철학분야 세계적 선도 수준	높음	높음	중간	
국가별 권역	미주권	유럽권	아시아권	

벤치마킹 요소 추출 및 선정	요 소	벤치마킹 결과		
		기본 벤치마킹	특별 벤치마킹	
		홋카이도대 인간지×뇌×AI연구교육센터	텍사스대학교 오스틴캠퍼스 윤리적 인공지능 과정	캠브리지대학교 인공지능, 데이터 및 알고리즘 윤리 과정
관련 교육과정 유무	유	유	유	
관련 특별프로그램 유무	유	유	무	
철학과의 연계성 구현	높음	중간	높음	
융합성	높음	높음	중간	

벤치마킹 실시 및 결과	구 분	벤치마킹 결과
		홋카이도대 인간지×뇌×AI연구교육센터
관련 교육과정		<인간지(人間知) 서론(1)>, <인간지 서론(2)>, <딤러닝연습>, <의식의 과학 입문>, <Philosophy and ethics of artificial minds>, <뇌와 기계의 이론 입문>, <마음과 인지의 철학 입문>, <신체와 인지의 철학 입문> 외 11개 교과목 개설
관련 특별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와 인지>를 주제로 매 학기 여름학교와 겨울학교를 개최, 특별 강연 위주로 수업을 운영하면서 "Platform Learning"으로 칭하고 있음. *2022년은 "마음의 진화" 과목을 개설, 5회의 특별강연을 실시. • "Practical Learning"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대학원생이 대학 내외의 관련 분야 연구실에서 수개월 간 연구하게 함.
철학과의 연계성		<인간지(人間知) 서론(1)>, <인간지 서론(2)>, <의식의 과학 입문>, <Philosophy and ethics of artificial minds>, <뇌와 기계의 이론 입문>, <마음과 인지의 철학 입문>, <신체와 인지의 철학 입문> 과목은 철학과 교육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음
융합성		19개 교과목과 "Platform Learning", "Practical Learning"은 융합적 연구 및 교육을 지향하고 있음

- 디지털인문학 분야 벤치마킹

대상 그룹	① 지역 기반, ② 국·공립대학, ③ 디지털인문학 분야의 세계적 선도 수준, ④ 국가별 권역
-------	---

선정기준	
선정요건	① 관련 교육과정 유무, ② 관련 특별프로그램 유무, ③ 철학과의 연계성 구현, ④ 융합성
국가별권역	① 미주권역, ② 유럽권역, ③ 아시아권역

대상 그룹 선정	대상군	UC 버클리대 디지털인문학 과정	퀵른대 디지털인문학 과정	도쿄대 디지털인문학 과정
	선정 기준			
지역기반		버클리	퀵른	도쿄
국·공립대학교		공립	국립	국립대 법인
디지털인문학분야 세계적 선도 수준		높음	중간	낮음
국가별 권역		미주권	유럽권	아시아권

벤치마킹 요소 추출 및 선정	요 소	벤치마킹 결과		
		기본 벤치마킹	특별 벤치마킹	
		UC 버클리대 디지털인문학 과정	퀵른대 디지털인문학 과정	도쿄대 디지털인문학 과정
관련 교육과정 유무		유	유	유
관련 특별프로그램 유무		유	유	유
철학과의 연계성 구현		높음	중간	중간
융합성		높음	중간	중간

벤치마킹 실시 및 결과	구 분	벤치마킹 결과	
		UC 버클리대 디지털인문학 과정	
관련 교육과정		Text Analysis for Digital Humanists and Social Scientists 외 40여 개 교과목 개설	
관련 특별프로 그램		·프로젝트: "Vietnamese Intellectual Networks Database" 외 50여 개 프로젝트 진행 중. 학생 참여 가능 프로젝트 다수 운영 ·워킹그룹: "Berkeley Digital Humanities Working Group"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디지털인문학 입문자를 위한 안내 역할을 담당	
철학과의 연계성		<정보윤리>, <미학과 데이터>, <뉴미디어 수사학>, <디지털 시대의 사유와 기술>, <중세 디지털인문학>, <디지털인문학 입문>, <디지털인문학과 사회과학 연구자를 위한 텍스트 분석> 등의 과목은 철학과 교육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음	
융합성		40여 개 교과목과 50여 개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융합적 연구 및 교육을 지향하고 있음	

○ 국제화 분야 벤치마킹

대상 그룹 선정기준	① 지역 기반, ② 국·공립대학, ③ 국제화 수준, ④ 아시아 권역
선정요건	① 외국어 강좌 운영, ② 대학원생의 국제학술대회 발표와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프로그램 유무, ③ 세계적 네트워크 형성, ④ 해외 유학생 유치
국가별권역	영어가 공용어로 쓰이지 않는 지역의 대학원에 가중치 부여

대상 그룹 선정	대상군	도쿄대 철학과 대학원	싱가폴대 철학과 대학원	홍콩대 철학과 대학원
	선정 기준			
지역기반		도쿄	싱가폴	홍콩
국·공립대학교		국립대 법인	국립	국립
국제화 수준		높음	높음	중간
국가별 권역		아시아권	아시아권	아시아권

벤치마킹 요소 추출 및 선정	요 소	벤치마킹 결과		
		기본 벤치마킹	특별 벤치마킹	
		도쿄대	싱가폴대	홍콩대

	철학과 대학원	철학과 대학원	철학과 대학원
외국어 강좌 운영	유	유	유
국제화 지원 별프로그램	유	유	유
세계적 네트워크	낮음	높음	높음
해외 유학생	높음	낮음	낮음

구 분	벤치마킹 결과	
	도쿄대 철학과 대학원	
외국어 강좌 운영	도쿄대 철학과 대학원은 <국제탁월대학원 프로그램(World-leading Innovative Graduate Studies Program)>의 일환으로, 고전을 원서로 강독하는 특별훈련을 이수하는 학부 학생에게 졸업논문을 면제하고 대학원에 진학시킴으로써 학부-대학원 과정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실효적 교육 실시	
국제화 지원 특별프로그램	·도쿄대 <국제탁월대학원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철학과 석·박사과정생은 <국제발신형> 과목군 중 한 과목을 필수선택으로 이수해야 함 ·박사과정생은 해외에서 연구발표를 하거나 학술조사를 할 경우 발표경비, 논문투고비 등을 지원받음	
세계적 네트워크	도쿄대 철학과 대학원의 세계적 네트워크 수준은 낮음	
해외 유학생	아시아 각국에서 온 유학생이 대학원의 약 5분의 1을 차지	

■ 세계저명대학 벤치마킹 분석 결과와 연계한 교육연구단의 미래 목표

○ 인공지능철학분야

- 훗카이도대학교 <인간지×뇌×AI연구교육센터> 교육과정을 참조하여 관련 교육과정 개편·신설
- 당 대학교의 교과목 <인간지(人間知) 서론(1)>, <인간지 서론(2)>, <딥러닝연습>, <의식의 과학 입문>, <Philosophy and ethics of artificial minds>, <뇌와 기계의 이론 입문>, <마음과 인지의 철학 입문>, <신체와 인지의 철학 입문>을 벤치마킹하여 <인공지능리터러시>, <일반지능학>, <인공지능윤리학> 교과목을 신설
- 당 대학교의 프로그램 중 “플랫폼러닝”을 벤치마킹하여, 여름학교와 겨울학교를 비교과과정으로 설치. 광주 내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인공지능사관학교와의 연계로 대학원생에게 인공지능 관련 기초지식을 함양케 함.

○ 디지털인문학 분야 벤치마킹: 미국 UC 버클리(Berkeley)대학

- UC 버클리대학 디지털인문학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관련 교육과정 개편·신설
- <정보윤리>, <미학과 데이터>, <뉴미디어 수사학>, <디지털 시대의 사유와 기술>, <중세 디지털인문학>, <디지털인문학 입문>을 벤치마킹하여 <철학정보학> 과목을 신설
- UC 버클리대학 디지털인문학 관련 특별프로젝트를 전남대학교 실정에 맞게 개편하여 실행

○ 국제화 분야 벤치마킹: 일본 도쿄(Tokyo)대학

- 도쿄대학 <국제탁월대학원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국제학술 튜터링 프로그램>을 국제화 지원 특별프로그램으로 신설 운영
- 도쿄대학 <국제탁월대학원 프로그램>의 일환인 외국어 강좌, 특히 고전 원서 강독을 위한 특별프로그램과 같은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

3) 교육연구단의 대표적 미래 목표에 대한 달성 방안

■ 교육연구단의 세 가지 대표적 미래 목표

- 인공지능에 관한 이론적 이해에 특화된 철학전문인력 10명 양성
- 철학-인공지능 공진화에 특화된 철학전문인력 10명 양성

- 철학정보학에 특화된 전문인력 10명 양성

■ 대표적 미래 목표 달성 방안

○ 교과과정

- <인공지능의 철학적 반성> 관련 교과목으로 <인공지능리터러시>와 <일반지능학>을 신설하고 향후 철학과 대학원 교과목을 지속적으로 개편한다.
- <철학-인공지능 공진화> 관련 교과목으로 <포스트휴머니즘>, <인공지능윤리>와 <철학정보학>을 신설하고 향후 철학과 대학원 교과목을 지속적으로 개편한다.

○ 비교과과정

- <인공지능×철학 다이브> 여름학교와 겨울학교를 비교과과정으로 설치. 광주 내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인공지능사관학교와의 연계로 대학원생에게 인공지능 관련 기초지식을 함양케 한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인문학 실무를 경험하고 인턴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특별프로그램 운영한다.
- 대학원생의 국제화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국제학술 튜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연구팀 구성 및 운영

- 인공지능 기술의 철학적 반성과 관련 <비판적 인공지능 연구팀> 구성 및 운영
- 철학과 인공지능의 공진화를 위한 <실천적 인공지능 윤리팀> 구성 및 운영
- 디지털 기반 철학 연구와 원전의 디지털적 전환을 위한 <철학정보학 연구팀> 구성 및 운영

○ 국제 학술활동 강화

- 장·단기 해외연수 지원 및 해외대학 교환학생 파견
-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참여
- 해외 석학 초청 강연 진행
- <전남대-훗카이도대 철학과 대학원생 학술교류 심포지엄> 추진

4) 본부 대학원 혁신방향과의 정합성

○ 전남대학교 대학원의 2대 목표

- (목표1) 대학원 교육 내실화를 통한 미래 선도형 혁신 인재 양성
- (목표2) 대학원 거버넌스 확립을 통한 학과 자율 기반형 혁신 체계 구축

○ 전남대학교 대학원의 「4대 핵심전략」

CNU 4대 핵심전략

- ① 대학원 거버넌스 혁신체계 구축 : 총장 중심 대학원혁신 지원 및 실질적 대학원 위상 강화
- ② 미래형 교육과정 및 학사체계 구축 : 융복합 종합정책 추진 및 대학원 중심 교육과정 운영
- ③ 창의형 연구인력 확보 및 집중육성 : 우수 인력 유치전략 수립 및 장학·지원사업 확대 운영
- ④ 선진형 연구문화 구축 및 국제화 : 연구윤리·안전환경·대학원생 권익보호에 기반한 연구문화 구축

- 본 교육연구단 목표와 전략은 전남대학교 대학원 혁신방향의 2대 목표, 4대 핵심전략과 내적

정합성을 가지고 있다.

구 분	비 전	목 표							
본부 대학원 혁신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융합인재 육성	대학원 교육 내실화 및 미래 선도형 혁신 인재 양성 대학원 거버넌스 확립 및 자율적 혁신 체계 구축							
인공지능철학 전문인력양성 교육연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혁신의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윤리 분야에서 철학과 인공지능이 협업·공진화할 방안을 제시하여 지역 기관과 협업 - 지역의 갈등해결과 인문복지실현에 인공지능이 복무하게 함 ○ 글로벌 융합인재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에 대한 철학적 반성>과 <철학-인공지능 공진화>를 핵심 가치로 하는 융합인재 육성 - 인공지능에 대한 횡단적 접근을 통해 철학의 지평을 확장하고 심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교육내실화 및 미래 선도형 혁신 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의 철학적 쟁점에 대한 비판적 분석 능력으로 미래 발전 방향을 예측하는 미래 선도형 혁신 인재 양성 - 인공지능과의 협업으로 윤리적 방향을 제시하고, 철학의 실천적 지평을 확장하는 미래 선도형 혁신 인재 양성 ○ 대학원 거버넌스 확립 및 자율적 혁신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리터러시>, <일반(비판)지능학>, <인공지능윤리>, <철학정보학> 등 시그니처 과목을 개발 - 인공지능철학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과목의 지속적 개편 추진 							
정 합 성	<p><정합성①> 비전과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는 본부 대학원의 혁신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교육부 4단계 BK21사업 추진 방향에 맞추어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되었음 								
	<p><정합성②> 전략 간 정합성 Mapping 대학원혁신 계획(4대전략)과 본 교육연구단의 전략 간 정합성 Mapping</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style="width: 50%;">대학원혁신(4대전략)</th> <th style="width: 50%;">본 교육연구단의 전략</th> </tr> </table>	대학원혁신(4대전략)	본 교육연구단의 전략						
	대학원혁신(4대전략)	본 교육연구단의 전략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 padding: 5px;">·미래선도형 교육과정 및 학사체계 구축</td> <td style="width: 50%; padding: 5px;">·인공지능-철학 융합형 교과과정 설치 ·인턴 과정을 설치하여 이론-실천 횡단형 인재 양성</td> </tr> <tr> <td style="padding: 5px;">·선진형 연구문화 구축 및 국제화</td> <td style="padding: 5px;">·연구의 질적 우수성 평가와 지원체계 강화 ·학술연구팀 활성화와 국제학술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td> </tr> <tr> <td style="padding: 5px;">·창의적 연구인력 확보 및 집중육성</td> <td style="padding: 5px;">·학사과정생에 대한 대학원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창의적 연구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 ·대학원생에 대한 교수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연구인력으로 집중 육성함</td> </tr> <tr> <td style="padding: 5px;">·대학원 거버넌스 혁신체계 구축</td> <td style="padding: 5px;">·세계 우수 대학원 벤치마킹·교과과정혁신 ·전공별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td> </tr> </table>	·미래선도형 교육과정 및 학사체계 구축	·인공지능-철학 융합형 교과과정 설치 ·인턴 과정을 설치하여 이론-실천 횡단형 인재 양성	·선진형 연구문화 구축 및 국제화	·연구의 질적 우수성 평가와 지원체계 강화 ·학술연구팀 활성화와 국제학술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	·창의적 연구인력 확보 및 집중육성	·학사과정생에 대한 대학원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창의적 연구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 ·대학원생에 대한 교수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연구인력으로 집중 육성함	·대학원 거버넌스 혁신체계 구축	·세계 우수 대학원 벤치마킹·교과과정혁신 ·전공별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미래선도형 교육과정 및 학사체계 구축	·인공지능-철학 융합형 교과과정 설치 ·인턴 과정을 설치하여 이론-실천 횡단형 인재 양성								
·선진형 연구문화 구축 및 국제화	·연구의 질적 우수성 평가와 지원체계 강화 ·학술연구팀 활성화와 국제학술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								
·창의적 연구인력 확보 및 집중육성	·학사과정생에 대한 대학원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창의적 연구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 ·대학원생에 대한 교수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연구인력으로 집중 육성함								
·대학원 거버넌스 혁신체계 구축	·세계 우수 대학원 벤치마킹·교과과정혁신 ·전공별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II. 교육역량 영역

※ 교육역량 영역 부분의 항목은 기본적으로 교육연구단이 속한 ‘학과(부)’ 단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세부 항목별로 특정 기준이 제시된 경우 이에 준하여 신청서를 작성

II. 교육역량 영역

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1.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현황과 계획

1) **현행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의 특징**

구분	졸업이수학점					BK21 4단계 사업(중단) 참여대학원생 추가이수학점				총계
	교과과정	일반 심화 선택	철학 큐레이팅 공통기초	철학 큐레이팅 공통선택	철학 큐레이팅 심화선택	소계	철학 큐레이팅 & 연구윤리	인문평화 이론&실천	철학 큐레이팅 트랙별선택필수	
석사	9	3	6	6	24	3	3	6	12	36
박사	15	3	6	12	36	3	3	6	12	48

- 현행 교육과정에 따르면 졸업이수학점은 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이다.
- 석사과정 학생은 일반 심화선택 9학점, 공통필수 3학점, 공통선택 6학점, 심화선택 6학점을 합하여 총 24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박사과정 학생은 일반 심화선택 15학점, 공통필수 3학점, 공통선택 6학점, 심화선택 12학점을 합하여 총 3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중단된] BK21 4단계 사업 참여대학원생들은 횡단형논문연구&연구윤리 3학점, 의사소통&펠로우쉽 3학점, 트랙별 선택필수 6학점을 합하여 추가로 12학점을 이수해야 했다.

2) **현행 교육과정의 장·단점**

- 현행 교육과정의 장점
 - 교육과정의 충실성을 위해 전통적 학문역량을 기초로 하면서 디지털 친화성 강화와 인문복지평화 역량을 제고하는 교과과정으로 구성됨
 - 철학기반 디지털 친화성을 향상하는 19개 교과목 신설됨: <철학큐레이팅연구1> 외 18개 신설
 - 인문복지평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인문복지평화학 관련 6과목이 신설됨: <평화철학연습>, <평화와문화워크숍>, <갈등과평화세미나>, <폭력과평화연습>, <인문평화이론&실천1>, <인문평화이론&실천2>
 - BK21 3단계의 지속성을 위해 동·서양의 철학자산을 횡단적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기획 및 전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디지털 철학큐레이팅 관련 교과목 개편
 - BK21 2단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수 있도록 인문복지평화 큐레이팅 관련 교육과정 운영
 - 외국인 교수에 의한 외국어 수업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철학전문인력을 양성
- 현행 교육과정의 단점
 - 인공지능의 비약적 발전이 환기하는 철학적 과제를 정면에서 다루지 못하는 교육과정임
 - 인공지능의 전방위적 응용에 따라 발생하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교육하는 과정이 결여되었음
 - 디지털인문학을 협소하게 이해하여 철학 원전을 디지털컨텐츠화하는 것으로만 이해함

- 국제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부족
- 디지털인문학 교과와 인문복지평화 교과 사이의 연계성이 부족

3) 신규 교육과정의 구성 및 운영 계획

■ 졸업이수학점 체계 재구성

- 석사과정 학생은 일반심화선택에서 9학점, 공통기초에서 3학점, 공통선택에서 6학점, 심화선택에서 6학점을 합하여 총 24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박사과정 학생은 일반심화선택에서 15학점, 공통기초&심화에서 3학점, 공통선택에서 6학점, 심화선택에서 12학점을 합하여 총 3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BK21 5단계 사업 참여대학원생들은 인공지능철학연구&연구윤리 3학점, 철학정보학이론&실천 3학점, 인공지능 철학 트랙별 선택필수 3(석사), 6(박사), 9(석·박사통합)학점을 합하여 추가로 9(석사), 12(박사), 15(석·박사통합)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구분	졸업이수학점					BK21 5단계 사업 참여대학원생 추가이수학점				총계
	교과과정	일반심화선택	인공지능철학공통기초&심화	인공지능철학공통선택	인공지능철학심화선택	소계	인공지능철학연구&연구윤리	철학정보학이론&실천	인공지능철학트랙별선택필수	
석사	9	3	6	6	24	3	3	3	9	33
박사	15	3	6	12	36	3	3	6	12	48
석박사통합과정	18	6	12	18	54	3	3	9	15	69

4) 신규 교과과정 세부 내용

- 전체 교과목은 총 141과목, 423학점으로 구성한다.
- 교과목을 8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재구성한다.
 - ① 인공지능철학 공통기초 1과목
 - ② 인공지능철학 공통심화 1과목
 - ③ 인공지능철학 공통선택 20과목
 - ④ 인공지능철학 심화선택 30과목
 - ⑤ 일반심화선택 40과목
 - ⑥ 인공지능철학연구&연구윤리 2과목
 - ⑦ 인공지능철학 트랙별 선택필수 24과목*
 - ⑧ 철학정보학 이론&실천 2과목

※ <인공지능의 철학 트랙>과 <철학-인공지능 공진화> 트랙

분류	공통기초	공통심화	공통선택	심화선택	일반심화선택	연구&연구윤리	트랙별선택필수	철학정보학이론&실천	총계
기존	1	1	23	30	40	1	24	-	120
신설	1	1	20	30	40	2	24	2	120

※ BK21 5단계를 위한 인공지능철학 관련 주요 신설교과목 세부 교과요목(추후 지속 개편 예정)

구분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개요
인공지능철학 공통기초 (신설예정)	인공지능 리터러시	3	인공지능이 생산하는 지식의 성격과 그것이 사회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인공지능이 작동하기 위해 성립되어야 하는 조건들을 살펴보고, 인공지능이 현재 인간의 환경, 노동, 지능, 문화 등을 바꾸어가고 있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포스트 휴머니즘	3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을 넘어서는 세계사적 징후를 파악하고, 동물이나 식물의 권리를 위한 논증, 인간 이외 존재 예컨대 인공지능의 윤리적 주체성과 책임을 위한 논증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인공지능철학 공통선택 (신설예정)	일반지능학	3	현대 이전 동양과 서양의 철학 분야에서 지능이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비교하여 고찰하고, 20세기 이후의 다양한 지능 이론을 개괄하며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또한, 인간 이외 생물체의 지능이 지닌 특성을 이해하며 인간 지능과의 차이를 고찰한다. 인간과 생물 지능의 포괄적 맥락에서 인공지능의 위상을 확인하고 발전 방향을 예측한다.
	인공지능윤리	3	인공지능의 응용에 따라 발생하는 편향성 문제, 인종·성 차별 문제, 환경 파괴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인공지능의 윤리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론적·실천적 방향에 관한 제반 논의를 검토한다.
	철학정보학	3	본 교과목은 철학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디지털 툴과 프로젝트(TEI, Annotation Studio, GIS, Voyant, EpiDoc 등) 친화 교육을 수행한다. 철학적 텍스트와 비-텍스트 자료를 디지털 환경에서 수합하고 활용 목적에 따라 분석하는 방법을 연습한다. 이를 위해 철학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적 디지털인문학 프로젝트를 개관하고 그것의 활용법을 연습한다. 또한 철학적 분석의 결과를 전통적 논문작성법 이외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 ·		(추후 개편·신설 예정)
인공지능철학 심화선택 (신설예정)	· · ·		(추후 개편·신설 예정)
일반심화선택 (신설예정)	· · ·		(추후 개편·신설 예정)
인공지능철학 &연구윤리 (2024년1학기 신설)	인공지능철학 &연구윤리1	3	본 교과목은 인공지능에 관한 철학적 반성 관련 연구주제를 발굴·분석함에 있어 우발적 연구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원칙과 행동양식을 연습한다.
	인공지능철학 &연구윤리2	3	본 교과목은 철학과 인공지능의 협업과 공진화를 모색하는 주제를 발굴하여 논문으로 작성함에 있어, 연구자의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수행 및 절차적 투명성과 내용의 정직성 확보를 위한 윤리원칙과 행동양식을 연습한다.

5) 교육과정의 충실성과 지속성

- 교육과정의 충실성을 위해 전통 학문역량을 기초로 하면서 디지털 친화성 강화와 인문복지평화 역량을 제고하는 교과과정을 구성한다.
 - 인공지능에 관한 철학적 이해를 향상하기 위한 교과목을 지속적으로 개발
 - 철학과 인공지능의 공진화를 위한 교과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 참여대학원생들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학술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
- 교육과정의 지속성을 위해 BK21 4단계 사업(중단)의 비전인 철학큐레이팅 전문인력양성을 계승하고 확장할 것이다.
 - BK21 4단계의 지속성을 위해 ‘철학-인공지능의 공진화’를 통해 <철학큐레이팅> 역량이 형성될 수 있게 할 것이다.
 - BK21 3단계의 지속성을 위해 인공지능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실천적 협업을 횡단하는 <횡단형 철학 인재>를 양성할 것이다.
- 철학큐레이팅연구&연구윤리1·2(각 3학점) 교과목을 인공지능철학연구&연구윤리1·2(각 3학점)

교과목로 개편하여 연구논문 작성 및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한다.

- 실습 교육체계를 강화한다.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인공지능사관학교와 협업하여 실습 프로그램 및 인턴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6)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 구조 구축 방안, 연구역량의 교육적 활용 방안

- 참여교수의 연구 결과물(논문, 저술, 번역 등)을 정규·비정규 교육과정에 활용하여 대학원생의 디지털 친화적 역량, 사회문제해결 역량, 국제학술 역량을 향상시키고, 이를 토대로 학문적 주체성을 가진 국제적 수준의 연구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게 한다.
- 정규·비정규 교육과정에서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다양하게 시도하여 대학원생이 참여교수들과 더불어 새로운 연구주제와 방법을 찾아가는 데에 도움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7) 교육연구단의 교육 목표 달성 방안

- 정규교육과정
 - <인공지능의 철학적 반성> 관련 교과목으로 <인공지능리터러시>와 <일반지능학>을 신설하고 철학과 대학원 교과목을 지속적으로 개편한다.
 - <철학-인공지능 공진화> 관련 교과목으로 <포스트휴머니즘>, <인공지능윤리>와 <철학정보학>을 신설하고 향후 철학과 대학원 교과목을 지속적으로 개편한다.
- 비정규교육과정
 - 여름학교와 겨울학교를 비교과과정으로 설치. 광주 내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인공지능사관학교와의 연계로 대학원생에게 인공지능 관련 기초지식을 함양케 한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인문학 실무를 경험하고 인턴 과정을 이수하는 특별프로그램 운영한다.
 - 대학원생의 국제화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국제학술 튜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연구팀 구성 및 운영
 - 인공지능 기술의 철학적 반성과 관련 <인공지능의 철학 연구팀> 구성 및 운영
 - 철학과 인공지능의 공진화를 위한 <인공지능 윤리팀> 구성 및 운영
 - 디지털 기반 철학 연구와 원전의 디지털적 전환을 위한 <철학정보학 연구팀> 구성 및 운영
- 국제 학술활동 강화
 - 장·단기 해외연수 지원 및 해외대학 교환학생 파견
 -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참여
 - 해외 석학 초청 강연 진행
 - <전남대-훗카이도대 철학과 대학원생 학술교류 심포지엄> 추진

8) 전임교수 대학원 강의 실적(최근 5년 이내, 2019.9.1~2024.7.26.)과 계획

■ 최근 5년 전임교수 대학원 강의 실적

학년학기	전체 강좌 개설 수	전임교원 담당		신진연구인력 담당	
		강좌수	담당 비율	강좌수	담당 비율
2019년2학기	14	9	64	2	14
2020년1학기	14	9	64	2	14
2020년2학기	11	6	55	2	18

2021년1학기	14	7	50	2	14
2021년2학기	11	5	45	2	18
2022년1학기	13	8	62	2	15
2022년2학기	8	6	75	1	13
2023년1학기	9	8	89	1	11
2023년2학기	6	5	83	1	17
2024년1학기	7	6	86	1	14

■ 전임교수 대학원 강의 계획

- 참여 전임교수 8인과 신진연구인력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안정성과 다양성의 조화
- 교육과정을 공통기초 1과목, 공통심화 1과목, 공통선택 20과목, 심화선택 30과목, 일반심화선택 40과목, 인공지능철학 연구&연구윤리 2과목, 트랙별 선택필수 24과목, 철학정보학 이론&실천 2과목 등으로 개편하여 구성
- 전임교수는 철학과 대학원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교과목을 운영하여 철학과 대학원생을 인공지능철학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로 양성

1.2 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구성 및 운영 계획

1) 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현황

- 전남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은 BK21 2·3단계를 수행하는 동안 실천인문학의 틀에서 산업·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인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인문복지 프로그램은 정규교육과정과 비정규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 인문복지와 관련된 정규교육과정 26개 과목 개설을 통해 학문역량을 갖추고, 시민인문학 등 다양한 비정규교육과정을 실천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1) 정규 교과과정 교육 프로그램 현황

- 소외계층을위한철학교육1, 소외계층을위한철학교육2, 청소년철학교육1, 청소년철학교육2, 시민철학아카데미1, 시민철학아카데미2 등

(2) 비정규 교과과정 교육 프로그램 현황

■ 시민인문학

-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대학원생은 다양한 시민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 시민과 만나 소통하는 가운데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시민인문학은 지역사회 시민들의 전문적인 인문학적 소양을 쌓고자 하는 열망에 부응하여 동·서양 철학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다.
- 시민인문학은 2005년 여름부터 시민 일반을 대상으로 <빛고을 철학교실>을 시작해서 시민인문학좌 지원사업(2008년-2012년)인 <사람과 세상을 바꾸는 인문강좌>를 운영하면서 <인문학의 대중

화, 대중의 인문화>를 지향해 왔다.

■ 교육부 추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2.0’ 인문학프로그램 지원 예정(추가)

- 교육부는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별 자율적 교육모델을 운영케 하는 ‘자율형 공립고2.0’ 사업을 추진. 선정된 40개 고교 중, 광주 5개 고교, 전남 11개 고교가 포함됨.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수완고등학교는 전남대 철학과와 공동으로 인문학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여 자교에서 실시함과 아울러 타 고등학교에도 전파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음.
- 전남대 철학과는 2024년 2학기부터 수완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여성주의 등을 주제로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과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임.

■ 청소년철학교실

- <청소년철학교실>은 광주·전남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동·서양 철학 및 인문학 고전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통찰 역량을 기르는 인문학강좌 프로그램이다.
- <청소년철학교실>은 전남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생들이 강사로 참여하여 정규 교과과정을 통해 배운 이론들을 실습하는 장이 되고 있다.
- 전남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은 <청소년철학교실>의 운영을 통해 지역의 교육기관과 연계한 인문학 교육 네트워크(총 21개 기관)를 구축하여 인문복지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 광주시민자유대학

-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는 지역의 학자와 시민이 공동으로 설립한 <광주시민자유대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 <광주시민자유대학>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교육을 지향하는 대안 대학이다.
- <광주시민자유대학>은 지역성, 공공성, 상호주체성, 자생성, 지속가능성의 원칙으로 운영되며 지역사회인 광주에서 학문과 예술을 매개로 다차원적인 담론을 형성하며 실천하고 있다.

2) 산업·사회 문제 해결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

(1) 산업 문제 해결 교육 프로그램

- <인공지능의 철학적 반성>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으로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 분야에 기여한다.
- <철학과 인공지능의 공진화>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철학 원전을 인공지능 친화적 정보로 전환함으로써 인공지능의 기술적 발전에 기여한다.

(2) 사회 문제 해결 교육 프로그램

- <철학과 인공지능의 공진화>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윤리적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 <철학과 인공지능의 공진화>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인공지능이 사회갈등을 해결하고 혐오문화를 중지하는 데 기여하게 한다.
- <청소년철학교실>과 <시민인문학>, <광주시민자유대학>에 참여하여 시민들과 소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